# 약속의 8회 또 뒤집었다

## KIA, 한화에 6-4 역전승 5위 굳히기
## 버나디나 4안타 3타점 맹타 승리 주역
## 타이거즈 올 시즌 8회 129득점 '뒷심'

'약속의 8회'가 또 승리를 불렀다.

KIA 타이거즈가 지난 3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6-4 승리를 거두며 4승 2패로 한 주를 마감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6위와 7위에 위치했던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가 나란히 패배를 기록하면서 KIA의 5위 굳히기에 속도가 붙었다. 삼성과는 2.5경기 차, LG와는 4경기 차까지 벌어졌다. LG는 또 이날 kt에 승리를 거둔 롯데 자이언츠에 7위까지 내주고 8위로 내려앉았다.

KIA의 살아난 뒷심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초반 분위기는 한화에 기울었다.

KIA 선발 한승혁이 1-1로 맞선 3회 선두타자 정근우를 우전 안타로 내보냈다. 이용규를 2루수 땅볼로 처리했지만 송광민의 유격수 땅볼 때 김선빈의 송구가 정확하지 않으면서 실책이 기록됐다. 이어 호잉과 이성열의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한승혁이 1-4에서 조기 강판됐다.

일찍 불펜을 가동한 KIA는 임기영-임기준-황인준-김윤동으로 남은 6.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기울어진 흐름을 가져왔다.

1-4 뒤진 5회말 김선빈의 선두타자 안타를 시작으로 버나디나의 2루타와 나지완의 내야 안타가 이어졌다. 2-4가 된 무사 1·3루에서 최형우의 타구가 2루수 앞으로 향하면서 병살타가 됐지만 3루에 있던 버나디나가 홈을 밟았다. 2사에서 안치홍이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분위기를 살렸고, 김주찬의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KIA가 4-4를 만들었다.

이후 불펜 싸움에 전개됐고, 기다리던 8회가 돌아왔다.

KIA에는 약속의 8회다. 타선의 힘이 살아나면서 후반 뒤집기쇼를 벌이고 있는 KIA는 올 시즌 8회 가장 많은 129득점에 성공했다.

이번에는 이범호가 물꼬를 텄다. 1사에서 이범호가 우전 안타로 출루했고, 김민식의 연속 안타가 나왔다. 그리고 상대의 폭투까지 이어지면서 1사 2·3루가 됐다. 김선빈의 1루수 앞 땅볼 때 홈에 들어오던 대주자 황윤호가 아웃됐지만 버나디나가 우측 안타로 두 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팽팽하던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그리고 9회초 등장한 김윤동이 14개의 공으로 삼자범퇴로 마지막 이닝을 마무리하면서 6-4 승리를 완성했다.

1회 첫 타석에서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도루 실패로 물러났던 버나디나가 화끈한 공격으로 아쉬움을 달래줬다. 버나디나는 1회를 시작으로 4안타 행진 속 3타점을 올리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버나디나는 "8회 타석에서 쉽지 않은 승부가 이뤄졌다. 몸쪽으로 공이 들어왔는데 반응을 잘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승리에 역할을 해서 기쁘다"며 "매 이닝 매 경기 중요한 순간이다. 쉽지 않은 한달이었는데 남은 2주간 잘해서 가을야구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8회 역전의 발판을 놓은 이범호는 "최근에 분위기가 좋으니까 선수들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후반 싸움을 하는 것 같다. 주자가 나가면 집중력을 가지고 선수들이 자신 있게 하고 있다"며 '약속의 8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톡톡

## 임창용 "내가 선발 때 홈런 쳐주는 안치홍 고마워"

**▲나 선발일 때 쳐주더라고** = '맏형' 임창용의 어깨를 든든하게 해주는 '특급 2루수' 안치홍이다. 임창용은 지난 29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6이닝 2피안타 1볼넷 6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시즌 5승에 성공했다. 올 시즌 10번째 선발 등판에서 기록된 무실점 승리로 임창용은 통산 130승도 채웠다. 임창용의 승리 뒤에는 KBO리그 2루수 역사를 바꾸고 있는 안치홍이 있었다. 1회 첫 타석에서 희생플라이로 선제점을 만든 안치홍은 6회에는 투런포를 터트리면서 나홀로 3타점을 올리면 4-3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그리고 안치홍은 이날 홍현우가 가지고 있는 역대 국내 2루수 최다타점인 111타점을 채웠다. 경기가 끝난 뒤 임창용은 "앞선 한화전에서 좋지 못했고 기필코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선발로 10번째 경기라서 잘하고 싶기도 했다"며 "후배들이 수비도 잘해줬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선발날이면 홈런을 쳐준다"면서 옆에 있던 안치홍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안치홍은 임창용이 처음 선발로 나온 7월 20일 kt전에서 1회 금민철을 상대로 투런포를 터트렸고, 8월 9일 롯데전에서는 노경은에게 3점포를 뽑아냈다. 그리고 9월 6일 넥센전에서는 역전 결승 만루홈런, 9월 18일 삼성전에도 만루홈런을 터트리는 등 안치홍은 임창용이 선발로 나온 10경기 중 5경기에서 홈런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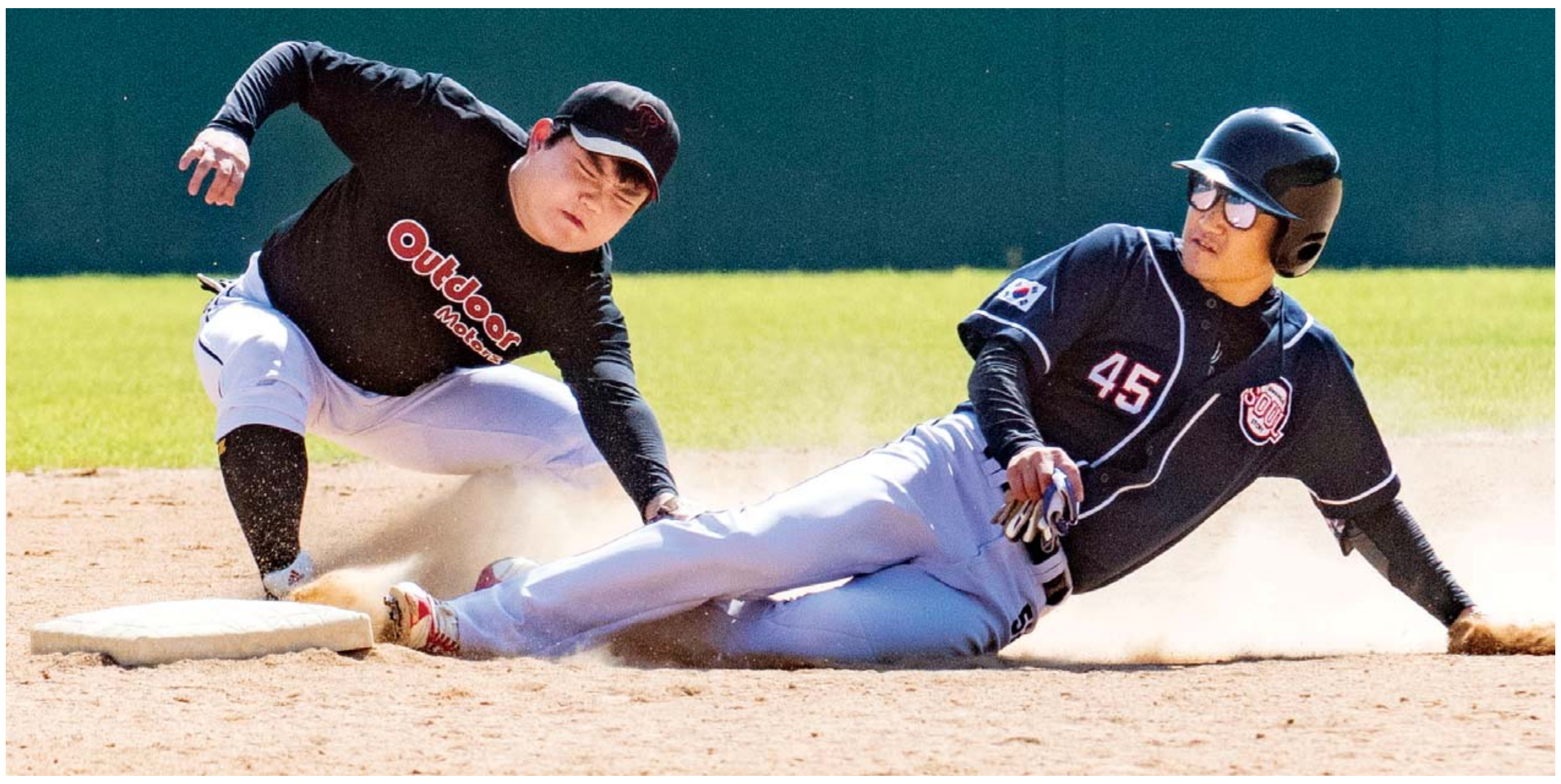
**▲나도 내가 반가웠어요** = 좌완 박경태는 지난 9월 27일 LG와의 원정경기에 등판해 '생존 신고'를 했다. 지난 2014시즌 이후 군복무를 했던 박경태는 지난 시즌 1군 무대에서 복귀전은 치렀지만 팔꿈치 수술을 하느라 세 차례 등판에 그쳤다. 그리고 올 시즌 막바지에 콜업이 되면서 오랜만에 경기를 치렀다. 2이닝 2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으로 복귀전을 치른 박경태는 "그동안 부상으로 고생했었다. 내년 시즌을 목표로 준비를 했는데 기회가 왔다"며 1군 복귀 소감을 밝힌 뒤 "4년 만에 잠실을 찾았다. (오랜만에 나와서 반갑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도 내가 반가웠다"고 웃었다.

**▲나 들어가 있어야 하나** = 지난 30일 한화와의 경기 전 김민호 수비 코치가 화제의 인물이 됐다. 팀의 5강을 놓고 중요한 승부를 벌여야 했던 이 날, 상대 선발 투수가 바로 김민호 코치의 아들 김성훈이었기 때문이다. 팀의 승리와 올 시즌 프로 무대에 데뷔한 고졸 2년 차 어린 아들의 첫 승이 걸려있던 만큼 김 코치에 이목이 쏠렸다. 김 코치는 경기를 앞두고 "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김상훈 배터리 코치는 "어제 못 주무셨다고 한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무조건 팀 승리요** = 올 시즌 불펜의 핵심 멤버로 등극한 임기준. 30일 한화와의 경기에서도 3이닝을 2피안타 1볼넷 3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막으며 역전승의 발판을 놓았다. 임기준은 "1이닝만 예정됐었는데 컨디션이 좋아서 더 던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가을 야구에 다가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웃었다. 올 시즌 5승 1패 2세이브 5홀드를 기록하고 있는 임기준은 1-4로 뒤진 상황에서 등판한 뒤 팀이 4-4 동점에 성공하면서 내심 승리투수도 기대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임기준은 "내 성적도 중요하지만 내 승리, 내 홀드보다 중요한 게 팀이다. 지금은 무조건 팀 승리가 우선이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프로야구보다 뜨겁다 … 무등기 가을야구 '불꽃 타격전'



30일 함평 전남야구장에서 열린 제8회 무등기 사회인야구 8강전 아웃도어 모터스 포비스와 쏘울스토리의 경기에서 2회말 1사2루 쏘울스토리 공격 때 타자 김남국의 땅볼에 주루하던 주자 박용국이 3루에서 태그아웃 당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일리그 - ARE Winders, 져스티스, 에프나인, 송원 블루제이스 8강 합류
## 무등리그 - 쏘울 스토리, 타요 바리스타즈 대망의 4강 선착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 잔치' 무등기가 재개됐다. 광일리그 8강 팀이 확정됐고, 무등리그 준결승행 두 장의 티켓 주인공도 가려졌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제8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가 지난 29일과 30일 각각 광주일고 야구장과 함평 야구장에서 열렸다.

앞선 3주 차 경기를 통해 8강행을 확정한 정신산업스카이, 광주실버야구단, 파트너스, 시티호텔에 이어 ARE Winders, 져스티스, 에프나인, 송원 블루제이스가 광일리그 4강 경쟁을 벌이게 됐다.

ARE Winders는 지난 29일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열린 빅벳과의 경기에서 공·수에서 활약한 최정민을 앞세워 9-2 승리를 거뒀다. 0-0으로 맞선 2회말 6점을 뽑아내며 승기를 잡은 ARE Winder는 4회와 6회 득점을 보태며 승리를 챙겼다. 최정민은 5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고, 타석에서도 안타 하나 포함 2개의 사사구로 3차례 출루, 승리의 주역이 됐다.

져스티스는 쌍촌동 남도 생고기를 11-5로 꺾고 8강 한자리를 차지했다. 1회초 2실점으로 출발한 져스티스는 2회말 대거 6점을 뽑았다. 3회초 3점의 추격을 허용하기도 했지만 6회말 5점을 만들면서 승리를 확정했다. 2회 1사에서 등판해 남은 3.2이닝을 3실점으로 책임진 신지호가 승리투수가 됐다.

30일 함평야구장에서 이어진 광일리그 16강 두 경기에서는 에프나인과 송원 블루제이스가 화력쇼를 펼쳤다.

에프나인은 카이로스와의 승부에서 1회부터 8점을 뽑아내는 폭발력으로 23-3, 4회 콜드 게임승을 장식했다. 1회에 이어 2회에도 6점을 만든 에프나인은 4회 9명의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4회 콜드승을 완성했다. 카이로스의 이민욱은 솔로포를 터트렸지만 팀의 패배로 아쉬움을 삼켰다.

송원블루제이스는 그라운드 홈런쇼로 워리워스에 18-11, 승리를 거뒀다. 1-3으로 뒤진 2회초 송원 블루제이스가 4점을 뽑으면서 역전에 성공했다. 워리워스도 바로 4득점으로 맞불을 놨지만 홈런의 3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송원 블루제이스의 정성현과 윤홍재가 잇달아 그라운드 홈런을 기록, 대거 6점을 만들었다.

5회에도 강병섭과 정준호가 그라운드 홈런을 만들며 워리어스를 압도했다. 승리투수가 된 윤홍재는 타석에서는 싸이클링 히트에도 성공하면서 승리의 수훈갑이 됐다.

무등리그 8강전 두 경기를 통해서는 쏘울 스토리와 타요 바리스타즈가 4강에 선착했다.

쏘울스토리는 아웃도어 모터스 포비스전에서 9-8로 이기며 가장 먼저 무등리그 4강 티켓을 가져갔다. 양 팀은 1회부터 3회까지 매 이닝 점수를 뽑으며 겨루기에 나섰다. 팽팽하던 승부는 시간제한으로 쏘울 스토리의 승리로 끝났다. 2·3번 자리에 선 유재민과 박용희가 나란히 멀티 히트를 기록했다.

타요 바리스타즈는 그린 요양병원을 12-4로 제압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1회 유진우가 투런을 터트리면서 선제점을 만들었다. 3회 2-2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3회말 타요 바리스타즈가 빅이닝을 만들며 승기를 가져왔다. 유진우는 홈런 포함 멀티히트로 3타점으로 승리를 불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무등기 4주 차 경기

◇29일(광일리그 16강전)

◆1경기

빅 벳 000002 -2

ARE Winders 060102-9

▲승리투수 : 최정민

◆2경기

쌍촌동 남도 생고기 20300-5

져스티스 06005-11

▲승리투수 : 신지호

◇30일(광일리그 16강전·무등리그 8강전)

◆1경기(4회 콜드승)

에프나인 8609-23

카이로스 0210-3

▲승리투수 : 정기주 ▲홈런 : 이민욱(3회 1점·카이로스)

◆2경기(5회 시간 제한 승)

송원 블루제이스 14607-18

워리어스 34031-11

▲승리투수 : 윤홍재 ▲홈런 : 정성현(3회 4점) 윤홍재(3회 1점 )강병섭 (5회 1점) 정준호 (5회 1점·이상 송원 블루제이스)

◆3경기(5회 시간 제한승)

아웃도어 모터스 포비스 22400-8

쏘울스토리 4230x-9

▲승리투수 : 최상록

◆4경기(5회 콜드승)

그린 요양병원 00211-4

타요 바리스타즈 20532-12

▲승리투수 : 조진훈 ▲홈런 : 유진우(1회 2점·타요 바리스타즈)

# 돌아온 강정호

## ML 피츠버그 복귀 2경기 연속 안타

천신만고 끝에 빅리그에 복귀한 강정호(31·피츠버그 파이리츠)가 깔끔한 안타로 건재를 뽐냈다.

강정호는 지난 30일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즈와 방문경기에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음주 운전 적발과 비자 발급 거부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날렸던 그의 메이저리그 경기 선발 출전은 2016년 10월 3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 이후 727일 만이다.

29일 신시내티전에서 대타로 빅리그에 복귀해 안타를 때려 타격 재능을 과시했던 강정호는 2018시즌 막판 2경기 연속 안타로 피츠버그와 재계약 가능성을 높였다.

피츠버그와 강정호는 2015년 4+1년 계약을 했다. 2019시즌 피츠버그는 연봉 550만 달러에 강정호와 1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혹은 25만 달러에 강정호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할 가능성도 있다.

강정호는 2회초 첫 타석에서 3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4회초에는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두 타석에서 침묵했던 강정호의 방망이는 0-3으로 끌려가던 6회초 날카롭게 돌아갔다.

2사 1·2루에서 타석에 선 강정호는 마이클 로렌젠의 시속 150㎞ 초구를 밀어쳐 우익수 앞으로 총알 같은 타구를 날렸다.

강정호는 9회초 마지막 타석에서 3루수 땅볼로 아웃돼 타격을 마감했다.

피츠버그는 신시내티에 0-3으로 패했다.

강정호는 29일 복귀전에서 7회초 9번 타자 자리에 대타로 나서 좌전 안타를 쳤다. 상대 우완 불펜 맷 위슬러의 시속 146㎞ 직구를 잡아당겨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 /연합뉴스

# 다저스, PS 진출

## 류현진 7승 … 오늘 지구 우승 도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6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다.

다저스는 지난 30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방문경기에서 10-6으로 승리했다. 시즌 90승 71패가 된 다저스는 남은 일정과 무관하게 리그당 2장씩 주어지는 와일드카드 티켓을 확보했다.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밀워키 브루어스(93승 67패)가 1위를 달리는 가운데 2위 다저스는 3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88승 73패)와 격차를 2경기로 벌렸다.

정규시즌 1경기를 남겨 둔 콜로라도(90승 71패)와 다저스는 동률이다. 다저스가 1일 정규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고, 콜로라도가 패하면 두 팀의 순위는 뒤바뀐다.

다저스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지구 우승을 차지했다.

앞선 29일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서 류현진은 6이닝 1실점의 대호투를 펼쳐 시즌 7승과 평균자책점 1.97로 2018 정규시즌을 마감했다.

/연합뉴스